농어촌공사, 물 안보 확보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해법 모색

21차 INWEPF 운영위원회

'식량안보를 위한 물 안보' 주제
미래 농업용수 관리 방향 등 논의
공사, 국제무대 교류 지속 방침



경기 안성에서 열린 '제21차 논 농업지역 물·생태계 국제 네트워크(INWEPF) 운영위원회' 참석자들. /농어촌공사

글로벌 식량·물 안보 및 미래농업용수 관리 관련한 논의를 위해 14개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한국에 모였다.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사흘간 경기 안산에서 '제21차 논 농업지역 물·생태계 국제 네트워크(INWEPF)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물관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INWEPF는 논 농업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다. 농업용수와 논 생태계 관리 관련 정책·기술 교류를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한국은 워킹그룹(WG-2) 의장국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대적 관개 시스템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식량안보를 위한 물 안보'를 주제로 마련됐다.

행사는 식량·물 안보와 미래 농업용수 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로 시작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준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장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량안보와 물 안보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와타나베 쓰기히로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회장은 아시아 각국의 논 물관리 사례와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기술과 기반시설뿐 아니라 제도와 농업인 참여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물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최경숙 경북대 교수, 와차라 수이아디 INWEPF 태국위원회 위원장, 모드 파이줄 무스타파 말레이시아 농업부 관개배수 부과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각각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의 농업용수 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세션 발표에서는 11개국 전문가 12명이 기후변화 대응 관개·배수시설 현대화와 논 생태계 보전, 첨단기술 활용 물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한국에서는 홍석영 농촌진흥청 국가농업위성센터장이 지난 7월 발사된 농림위성의 농업 분야 활용계획을 소개했다. 김대우 공사 농어촌연구원 차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관개·배수시설 현대화 정책 및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12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워킹그룹)와 국가위원회가 올해 활동을 보고했다. 한국은 지난 10월 제26차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총회에서 일본과 공동 개최한 '식량안보를 위한 물 안보 강화' 워크숍 성과를 알렸다. 이 밖에 한국의 통합 물관리, K-라이스벨트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분과위원회별 회의·세미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마지막 날인 13일 공사 농어촌연구원 국제융합수리시험센터와 국립농업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변화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물 안보 확보는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각국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국제교류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세계물포럼(WWF)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이어 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기술 협력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김성환 장관 "韓, '탄소시장연합' 신규 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

김 장관, OCCM 고위급 회의 참석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 등 공유"

우리나라가 '탄소시장연합'의 14번째 회원국이 됐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이날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계기의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약칭: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선언했다.

OCCCM은 배출권거래제 등 의무탄소시장에 관한 협력을 도모한다. 지난해 당사국총회(COP30)에서 브라질이 제안했다. 이어 올해 5월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의 참여로 출범한 자발적 협력체다. 한국이 가입하면서 회원국 수가 14개국으로 늘었다.


세종 기후부 청사 /메트로신문DB

이 협력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의무 탄소시장에 관한 경험을 공유한다. 산정·보고·검증, 탄소회계, 고품질 상쇄제도 활용 등을 주제로 회원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가 단위의 의무 탄소시장 또는 탄소가격제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성환 장관은 가입 발표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며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구축한 산정·보고·검증(MRV) 체계와 시장 설계·운영, 배출권거래제 내 상쇄제도 운영 경험 등을 탄소시장연합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탄소시장연합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탄소시장연합을 의무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또 2027년 업무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업무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발족해, 향후 본격적인 국제 탄소시장 논의 진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창출 팔 걷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업무협약

노사발전재단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진단평가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재단은 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전국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광역형 특화 고용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경기과학기술대에서 맺은 협약에서 양 기관은, 지원 범위를 단일 지역에서 전국 단위의 광역형 체계로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그간 경기지역에서 자동차 진단분야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자동차 진단평가 분야 중장년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 ▲전국단위 채용 수요 발굴 및 기업 연계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의 진단평가사 양성교육 및 인프라 지원 ▲기관 간 홍보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오른쪽)이 14일 엄기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과 '자동차 진단평가 인력양성 및 고용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광역형 특화 서비스의 핵심은 지역 한계를 넘어 현장에서 필요한 일자리와 인재를 밀착 연결하는 데 있다"며 "제도와 숫자에 치우치기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마사회,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우희종 회장 "포용·상생 일터 만들 것"

한국마사회가 '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모범을 보인 기업을 선정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제도이다.

마사회는 정규직 채용 시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을 운영했다. 특히 AI·빅데이터 전문 직무와 불법경마 사이버 단속 지원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해 왔다. 이를 통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장애인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왔다. 채용 전형 전반에 걸쳐 보훈·장애 중복 가점을 확대 인정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우대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등 채용 문턱을 낮췄다. 또 시험시간 연장, 별도 시험실 배정, '읽기 쉬운 채용공고문' 제공 등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실질적인 편의 지원도 강화했다.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음성점멸 유도등 교체, 단차 해소를 위한 경사로 설치 등 사내 무장애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장애대학생 기업탐방 우수기업'에 이어 올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것. 장애인 취업 지원부터 채용·근무환경 개선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정부포상 추천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사진)은 "장애인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 기회 확대뿐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과 상생의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경제지주, '그리니 3기' 해단식

양파 등 농산물 소비 활성화 힘 보태

농협경제지주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그리니 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은 6개월간 제철 농산물과 농협 가공식품 홍보, 농협 경제사업 현장 취재, 소비촉진 캠페인 및 농산물 나눔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

특히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파 및 샤인머스캣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들 손에서 온라인 콘텐츠 총 250건이 탄생했다.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순국선열의 날을 앞두고 서울 독립공원 일대에서 사회적기업의 플로깅 세트를 활용한 쓰레기 수거에도 참여했다.

또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와 함께 ▲활동성과 보고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여 등을 통해 6개월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대표이사는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젊은 시각으로 널리 알려준 대학생 서포터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농협은 대학생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젊은 세대에게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